

'26. 6. 12.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아 · 태

- 中, '잠재적 위험자' 미리 색출하는 국가 AI 감시망 개발
 - 6.2 언론은 중국 감시업체 「Geedge Networks」가 시민의 통신기록, 인터넷 이용내역, SNS 활동, 위치정보 등을 활용하여 사람을 식별하는 AI 기반 예측 시스템을 개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
 - ※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공공감시망(CCTV, 안면인식, 통신감청 체계)을 운영 중이며, AI와 결합하여 '행동 예측형 감시체계'로 발전시켰다 부언
- 인도, 암호화폐 테러 자금조달 혐의 2명 체포
 - 6.7 언론은 인도 구자라트 경찰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테러 자금조달 혐의로 용의자 2명을 체포했으며, 국제 마약 밀매 및 다크웹 금융 활동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보도
 - ※ 언론은 용의자들이 타인의 고객확인(KYC) 정보를 이용해 바이낸스 지갑을 개설하고, 단계적 거래 방식으로 5,000 USDT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부언
- "무력 진압 대비, 총기 만들어 농자" 잠실 시위 SNS에 경찰 긴장
 - 6.9 언론은 '투표용지 부족사태'를 규탄하는 잠실 시위 관련 SNS에 '총기 도면을 기억하고 있으며 만들 수 있다'는 글이 게시됨에 따라 경찰이 실제 제작 여부 및 위해 가능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보도
 - ※ 경찰은 구체적인 실행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공중협박, 총포·도검·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부언
- 韓, 차량 안에서 모의 총기 발견... 한때 軍 당국 출동
 - 6.9 경찰은 인천 서구 도로에 방치된 차량에서 권총 1정을 발견해 군과 공조 수사한바 실제 총기가 아닌 모의 총기로 확인되었으나,

경찰과 군 당국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발생했다고 보도

※ 同 물체는 차량 소유자도 모의 총기라고 진술, 경찰은 총포화약안전기술 협회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부언

유 럽

○ 그리스, 팔레스타인 남성 '테러 모의' 혐의로 체포

- 6.8 언론은 그리스에서 하마스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팔레스타인 남성이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체포됐으며, 최근 체포된 다른 팔레스타인인 2명과 함께 폭발물 사용 훈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

※ 언론은 용의자가 이스라엘 관광객 크루즈선이 정기 기항하는 지역 호텔에서 근무하며, 폭발물 제조용 화학물질을 온라인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

중 동

○ 이스라엘, 테러 추정 연쇄 총격...1명 사망, 5명 부상

- 6.7 언론은 이스라엘 중부 추르 이츠하크 인근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연쇄 총격이 발생해 최소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한 가운데, 경찰이 용의자 1명을 무력화하고 다른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보도

미 주

○ 온두라스, 야자수 농장 집단학살 사건 주모자 체포

- 6.2 외신은 사건이 발생한 「바호 아구안」 지역은 중남미 최대 치안 불안 지역으로, 최소 6명 이상의 공범자들이 범행을 계획·지원한 것으로 보고, 추가 공범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

※ 지난 5월에는 과테말라 접경지역에서 경찰관 5명이 피살되는 등 조직범죄 세력에 의한 치안 불안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부언

○ “몸에 폭탄 달았다”, 美 캘리포니아서 ‘15시간 인질극’ 벌인 용의자 사살

- 6.4 언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에서 41세 남성이 교육청 직원 10명을 인질로 붙잡고 자신과 인질들에게 폭발물 부착을 주장하며 15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사살되었다 보도

※ 경찰은 용의자가 과거 자신이 연루된 아동 성범죄 사건의 자료를 요구하며 인질극을 벌였고, 인질에게 부착된 폭발물은 실제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언

○ 월드컵 기간 밴쿠버·토론토 상공에 24시간 전투기 띄운다

- 6.4 외신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(NORAD)가 월드컵 기간에 테러 시도 및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밴쿠버와 토론토 상공에 미사일과 기관포를 탑재한 전투기가 배치돼 공중 순찰 실시 예정이라 보도

※ 당국은 비행금지구역에 항공기 무단 진입 시, 무전 교신 및 조명탄 등 경고 후, 필요시 최종 조치로서 캐나다 총리나 미국 대통령 승인하에 항공기 격추 가능성 언급

○ 멕시코, 북중미 월드컵 치안 대책으로 10만 군경 투입

- 6.5 언론은 멕시코 정부가 북중미 월드컵 대비 3개 개최 도시에 10만 군·경을 투입하는 등 치안 대책을 펼치고 있으나, 개최 도시 특성상 외곽·심야 보행 등 관광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도

※ 언론은 한국 대표팀과 경기가 열리는 과달라하라가 악명 높은 마약 카르텔 'CJNG'의 본거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부언

○ 美, 캘리포니아주 고교 졸업식장에서 총격...4명 사상

- 6.5 언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어필드 고등학교 졸업식 행사 직후 주차장에서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, 3명이 다쳤으며, 경찰은 약 1,000여 명의 목격자 조사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보도

※ 언론은 경찰이 추가 위협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으나, 용의자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부언

○ 美, 캔자스시티 내 영국 대표팀 베이스캠프 인근에서 총격 발생

- 6.8 언론은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내 잉글랜드 대표팀 베이스캠프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하여 9명이 다쳤고, 용의자는 아직 검거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도

※ 언론은 캔자스시티가 아르헨티나 등 주요국 베이스캠프이자 월드컵 기간 65만 명 방문이 예상되는 도시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부언

역사 속 테러사건

日, 마츠모토市 사린가스 테러

- '94. 6. 27 일본 나가노현 마츠모토시 법원 관사 소재지에 옴진리교 간부가 특수 트럭을 활용하여 사린가스를 살포하여 7명이 사망하고 600여명의 부상자 발생



<테러 사용 트럭 외관>

- * 트럭에 액체의 사린이 탑재되어 가열 후 에어로졸 형태로 전환, 환풍기를 통해 살포
- 당시 옴진리교는 일본 전역에 기도원 건축을 시도 중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했고, 마츠모토시 주민들이 사기죄로 옴진리교를 고발
- 재판에 승소할 가능성이 없었던 옴진리교는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를 암살하기 위해 사린가스를 활용한 테러를 감행
- 일본 정부는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원인물질을 사린가스로 발표하였는데, 이후 옴진리교가 '도쿄 지하철 독가스 테러('95. 3.)를 감행하면서 '마츠모토시 사린가스 테러는 일종의 실험이었다'는 진상이 밝혀짐
- 사건 발생 30여 년이 지났지만, 최근 일본에서 인파 밀집 시설에 '최루액 살포' 테러 등 '묻지마 범죄' 형태의 화학 테러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도 모방범죄 발생을 대비한 대응체계 점검 필요

테러 상식

< 사린(Sarin, GB) 가스 >

- (제조) '38년 독일의 화학자인 「게르하르트 슈라더」에 의해 최초로 합성
* 신경계에 작용하는 독일(German)의 두번째(B) 독가스라는 의미의 코드명 'GB'
- (독성) 독성은 청산가리의 500배 수준이며 무색·무취로 피부, 호흡기로 흡수되어 마비, 구토, 경련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호흡근육 마비로 질식사
- (처치) 옷을 벗기고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에 눈 및 피부를 세척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고, 해독제(아트로핀) 투여
- (사용사례)
 - '80년 이란-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군이 무기로 사용
 - '94년 옴진리교가 사린가스를 이용하여 마츠모토시 테러간 사용
 - '95년 옴진리교가 사린가스를 이용하여 도쿄 지하철 테러간 사용